

수도권 25개 업종 공장 규제 완화 3년 후에는...

광주·전남 3조8,400억 피해

지역균형발전협약의 분석 ... "지방경제 붕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지방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입지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첨단업종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광주·전남에서만 오는 2011년까지 종사자 3천800여명, 생산액 2조7천800억여원, 부가가치 1조600억여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진단은 광주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등에 의뢰해 실시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결과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25개 첨단업종의 지역별 종사자 수와 생산액, 부가가치 비율에 있어 수도권은 각각 48.2%, 39.8%, 42.7%를 차지해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오는 2011년 수도권의 비중은 종사자 수 54.4%, 생산액은 50.6%, 부가가치는 52.7%로 증가해 모든 면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된 수도권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할 경우 집중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지방은 25개 업종에 대한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2000~2006년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5천570명, 생산액 88조3천963억원, 부가가치 35조7천492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의 경우 종사자 3천285명, 생산액 2조2천64억원, 부가가치 8천608억원이, 전남은 609명, 5천752억원, 1천996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6년 기준 25개 업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 유형 고정자산, 생산액, 부가가치 등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는 1.1~2.3%에 그쳤고, 전남은 이보다도 낮은 0.3~0.6%에 불과해 첨단산업에서도 허약한 산업구조를 보여줬다.

연구진은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이 신설되면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연 박사는 "광주와 울산 등은 IT 및 전자산업이 들어와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인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장애인 음악가 '희망 콘서트' 4인의 장애인 음악가가 펼치는 '희망으로 콘서트'가 29일 오후 광주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지체장애자인 테너 김동현씨와 클리넷 연주자인 시각장애인 이상재씨, 국내 유일의 '휠체어탄 성악가' 황영택씨, 지체장애 방송인 박마루씨(왼쪽부터) 등 4인조 장애인 공연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준 높은 교육 여건·주거 환경 갖춰주세요"



한국전력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29일 나주시 금천면 배매산 정장에서 혁신도시 조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 탐방'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 한목소리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한국전력 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47명이 29일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부지에서 열린 '이전 기관 임직원 초청 지역탐방행사'에 참석, "혁신도시가 최고의 교육·의료·주거 환경을

갖춘 '범포도시'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광주시 관계자의 안내로 금천면 배매산 정상에 올라 혁신도시 조성 현장을 둘러본 뒤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스러워 했지만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장정동 한전 IT지원처장은 "부모

들의 가장 큰 소망은 훌륭한 교육여건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직원들이 지방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국가정책에 따라 사실상 '강제 이주'하는 만큼

피해의식도 없지 않다"며 "이주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PS 본사 이전팀의 최영수 과장은 "혁신도시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국정감사 결과가 발표돼 새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아파트 취·등록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구조조정처에 근무하는 채해진씨는 "혁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만큼 공사 진척상황은 물론 주거, 교육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시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이들은 31일 상경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코스피 하루 변동폭 158P 사상 최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오늘 체결

국내 증시가 악성 루머 등의 여파로 크게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29일 금융시장은 환율이 모처럼 급락세를 보인 반면, 증시는 또다시 공포감에 휩싸이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968.97로 장을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30.19포인트(3.02%) 떨어진 것으로, 이날 하루 157.98포인트를 오르내린 끝에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뉴욕증시 급등 소식에 장중 1,078.33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들어 급락세로 전환되는 등 사상 최대의 변동폭을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6.84포인트(2.51%) 떨어진 265.59로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스와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문과 C&G그룹의 워크아웃 가능성 등의 여파로 크게 흔들렸다. 반면 외환시장은 모처럼 회복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0.80원 급락한 1,427.00원으로 마감돼 7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과 미국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30일 체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에 통화스와프 협정 문제를 조율해왔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서 3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북로 M대우 50
 TEL 062-71-1111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TEL 062-71-1111

전남과학대학
 전남과학대학
 TEL 062-71-1111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